

한국어의 무표형과 단수/복수 의미*

노 은 주
(인하대학교)

1. 서론

한국어에서 ‘학생’과 같은 복수 표지-‘들’이 붙지 않은 소위 무표형 명사는 단수의 의미로 쓰일 수 있다. (1)을 보자.

- (1) a. 학생이 전화를 걸어 면담을 신청하였다.
- b. 그 학생은 취업 문제를 상담하고 싶어 했다.

(1a) - (1b)에서 명사 ‘학생’은 단수의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한국어의 복수 의미를 다루는 많은 논문에서 (2)와 같은 예문을 들어 무표형 명사를 복수형으로 분석하여 왔다.

- (2) 학생이 시위를 한다.

(2)에서 학생은 한 명일수도 있고, 여러 명일 수도 있다고 주장되어 왔다.

그렇다면, ‘학생’과 같은 무표형 명사의 수는 단수인가? 복수인가? 단수도 되고 복수도 되는 중의적(ambiguous) 의미인가? 단수와 복수가 표시되지 않은 모호한(vague) 의미인가? 백미현(2002), Kwak(2003), 전영철(2004), 등은 무표형을 단수형과 복수형의 중의적 의미로 분석하고 있다. 강범모(2007)는 단수형과 복수형이 구별되지 않는 모호한 의미로 분석하고 있다고 이해 된다 (아래 화용적 함축 관련 주장 참고).

본 발표에서는 우선 이들 이론들을 간략히 소개하고, 무표형이 단수의 의미로 쓰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또한, 21세기 세종계획에서 구축된 말뭉치를, 한마루2 직접검색기로 검색한 결과를 바탕으로 (2a)와 같은 구문은 실제 잘 쓰이지 않음을 보여 주고자 한다.

2. 선행연구

한국어의 복수형은 복수 표지-‘들’이 붙지 않은 무표형과 ‘들’이 붙은 유표형, 두 가지가 있다고 널리 주장되어 왔다. 이 두 형태의 의미 차이에 대한 이론으로는 두 형태 사이에 의미 차이가 있다는 주장과 (백미현 2002, Kwak 2003, 전영철 2004, 등) 개별성(복수성)의 정도 차이만 있다는 주장으로 대표된다 (강범모 2007).

의미 차이가 있다는 주장은 대체로 무표형은 집단 해석(group-reading)을, 유표형은 분산적 해석(distributive reading)이나 개체합 해석(sum-reading)을 가진다는 주장이다. 우선 백미현(2002)의 주장을 보자. 백미현에 의하면, 무표형은 집단적 복수 해석만을 가진다는 증거를 다음의 예에서 볼 수 있다고 한다 (백미현 2002: (3) - (4)에서).

- (3) a. ??학생이 각자 잘 했다.
- b. 학생들이 각자 잘 했다.
- (4) a. 아이들이 제 각각으로 생겼다.
- b. *아이가 제 각각으로 생겼다.

* 이 발표의 내용은 <담화와 인지> 15.1, pp43-62에 실린 논문의 일부임.

백미현은 (3a)의 ‘학생’과 (4b)의 ‘아이’와 같은 무표형은 복수의 개체들이 집단적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각자’나 ‘각각’과 함께 쓰일 수 없고, 분산적 복수 개념을 나타내는 ‘들’-복수형만 이들과 함께 쓰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Kwak(2003)도 (5)와 같은 예문을 들어 무표형은 ‘각자’와 함께 쓰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 (5) a. 학생들이 각자 선생님께 질문을 하였다.
- b. #학생이 각자 선생님께 질문을 하였다.

(5)에서 (a)의 ‘학생들’은 ‘각자’와 함께 쓰일 수 있으나, ‘들’이 없는 (b)의 ‘학생’은 ‘각자’와 함께 쓰일 수 없다. Kwak은 이들을 집단적 해석만을 가지는 복수형이라고 주장하였다. 또, ‘각자’ 이외에도 분산 표지 (distributive marker)-‘들’ 과 분산 불변화사(distributive particle)-‘씩’과도 함께 쓰일 수 없다고 하였다. 그의 예문을 보자.

- (6) a. 학생들이 선생님께들 질문을 하였다.
- b. #학생이 선생님께들 질문을 하였다.
- (7) a. 엄마가 아이들에게 풍선 하나씩을 주었다.
- b. #엄마가 아이에게 풍선 하나씩을 주었다.

분산 표지-‘들’은 술어를 분산하여 주어가 지시하는 대상 각각에 적용하게 하는 표지로서, (6a)에서는 자연스러우나 (6b)에서는 변칙적인 해석이 생긴다. 또한 분산을 나타내는 불변화사 ‘씩’도 (7a)에서는 풍선을 아이 각자에게 주었다는 해석이 가능한데, (7b)에서는 가능하지 않다. 이런 이유로, Kwak(2003)은 무표 복수형은 집단 해석을 나타내고, ‘들’-복수형은 개체합의 해석을 나타낸다고 주장하였다. 전영철(2004)도 복수형을 ∅-복수형과 ‘들’-복수형으로 나누고, 각각 집단적 해석과 개체합 해석을 가진다고 하였다. 이들 이론들은 모두 무표형과 유표형을 복수형으로 보고 있음에는 동일하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왜 분산 표지나 분산 불변화사가 이들 집단(그들의 주장대로 집단을 의미한다면)을 분산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다. 본 연구에서는 분산 표지는 복수의 개체를 분산하는 것으로 (4) - (8)의 해당 무표형은 단수이기 때문에 분산 표지와 함께 쓰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7b)의 ‘아이’는 한 명이며, 아이들의 집단으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본다. 만약 아이들의 집단이라면, 왜 분산표지가 그 집단을 분산하지 못하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위 예문에서 ‘아이’나 ‘학생’을 단수로 보면, 분산 표지와 함께 쓰이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겠다.

한편, 백미현-Kwak-전영철이 무표형과 유표형을 집단적 복수 의미와 분산적 복수 의미로 나눈 것에서 더 나아가, 강범모(2007)는 ‘들’-복수형과 무표 복수형이 모두 개별성, 즉, 복수성을 가지며, 둘의 복수성은 정도에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는 무표형도 집단적 복수 의미만이 아니라 분산적 복수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강범모도 무표형과 ‘들’-복수형을 모두 복수형으로 분석하고 있음에는 이전 주장들과 차이가 없다고 하겠다.

강범모는 (8)(강범모 2007:(12)에서 인용)에서 무표 복수형도 ‘각자’와 함께 쓰일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무표 복수형도 분산성을 가지는 개체합 해석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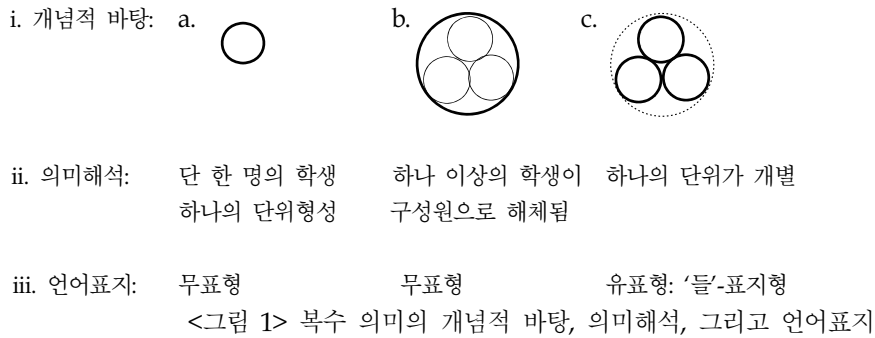
- (8) a. 학문을 하는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가 하는 학문의 의의와 방향에 대해서 생각하고, 실제 연구의 방법을 바로잡고자 한다.
- b. 일찍 들어오는 사람은 [각자] 알아서 밥도 차려 먹고 설거지도 하고 또 바쁜 사람 위해서 커피도 끓여 주고
- c. 국민 [각자] 각자가 행사나 바라보는 ‘구경꾼’이 아니라 직접 허리를 구부려 쓰레기를 줍는
- d. 30리 떨어진 수덕사 소풍 길도 전교생이 [각자] 먹을 쌀을 싸메고 걸어갔다.

(8)에서 무표형인 ‘사람’, ‘국민’, ‘전교생’들은 복수 표지-‘들’이 사용되지 않았으나 분산적 의미를 가진 복

수형과 함께 쓰인다는 [각자]와 함께 쓰였다.

그러나 (8a) - (8c)의 무표형 구문은 실제 기술에 부합하는 사람의 수는 복수일 수도 있는 속성적 용법 (attributive use)으로 쓰인 구문이다 (속성적 용법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논의될 것임). (8d)의 '전교생'은 집단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집단도 분산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증거는 될 수 있으나 무표형이 분산적 복수 의미를 가진다는 증거는 될 수 없다고 본다.

지금까지 '학생'이나 '아이'와 같은 무표형을 복수형으로 보는 여러 주장들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단수를 나타내는 무표형 명사구문은 이들 이론으로 어떻게 다를 수 있을까? 백미현은 무표형 명사가 단수와 복수, 두 의미로 쓰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림 1> (백미현 2002:61)을 보자.



<그림 1>에서 무표형은 단수 개체나, 분산할 수 없는 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Kwak(2003)과 전영철(2004)도 무표형이 단수의 개체를 나타내거나 복수 개체의 집단적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3. 무표형의 수(數)

그렇다면 무표형의 의미는 중의적인가? (9)를 보자.

- (9) a. 한 학생만 보내 줘.
 b. 오는 길에 한 학생을 만났다.

'학생'이 중의적이라면 '학생'은 '한 명의 학생'과 '하나의 학생 집단'이라는 두 가지 해석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9)에서 '학생'은 한 명의 학생만을 의미한다. 어떤 문장에서도 '한 학생'이 하나의 학생 집단으로 해석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무표형이 중의적이라는 주장은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또한, 무표형은 (10)에서와 같이 총칭으로도 사용된다.

- (10) 사람은 죽는다.

무표형이 복수 개체의 해체할 수 없는 덩어리를 의미한다면, 총칭으로 사용된 무표형도 복수 개체의 해체할 수 없는 덩어리를 의미하는가? 전영철(2004)은 그렇다고 보고 있다. 그는 종류란 '그 종류에 속하는 모든 구성원을 끌어안는 동시에 그 모든 구성원들의 집합을 하나의 덩어리로 파악하기 위하여 사용'되므로 '복수 개체'이면서 동시에 원자로 파악되는 집단의 개념과 통한다고 주장한다(전영철 2004:36). 그는 Chierchia(1998)의 이론을 바탕으로, '총칭명사구는 종류를 지시하고, 종류는 일종의 집단에 해당하고, 집단은 원형단수(=∅-복수형)에 의해 실현되므로 한국어의 총칭명사구는 원형단수를 선호한다'고 주장한다(전영철 2004:39). 하지만, 술어 '죽는다'는 각 개체에 적용되는 것인데, 해체할 수 없는 덩어리라면 어떻게 개체에 적용될 수 있을까?1)

1) <담화와 인지>의 한 심사위원은 총칭과 집단을 같이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집단은 내부적으로 복수의 구성원을 가지지만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원자개체인 반면 총칭문장은 총칭양화사에 의한 배분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이는 총칭으로 쓰인 무표형이

영어에서도 대표 단수라는 것이 있어 총칭으로 사용된다.

(11) The/A dog barks.

(11)의 'the/a dog'는 특정한 개 한 마리를 가리킬 수도 있지만, 개라는 집단에 속한 동물 각각을 가리킬 수도 있다. 이 때 'the/a dog'을 복수형이라고 하진 않는다.

한정(definite) 명사구는 속성적 용법(attributive use)과 지시적 용법(referential use)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attributive use'는 '한정적 용법'으로 번역된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definite'을 뜻하는 '한정적'과 혼동될 염려가 있어 '속성적 용법'이라고 부르겠다.) (Donnellan 1966/1991, Récanati 1989, Rouchota 1992, 1994). Donnellan의 유명한 예문을 보자:

(12) Smith's murderer is insane.

화자가 Smith를 살해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고, 단지 그가 잔인하게 죽었다는 것만 알고 '누구든지 Smith를 죽인 사람은 제 정신이 아니다' ('Whoever murdered Smith is insane')의 뜻으로 (12)와 같이 말했다면, 'Smith's murderer'는 속성적으로 사용된 것이다. 한편, 퍼킨즈가 Smith의 살인범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 이상한 행동을 보여, '퍼킨즈는 제 정신이 아니다'라는 의미로 (12)를 사용했다면, 'Smith's murderer'는 퍼킨즈를 지시하는 지시적 용법으로 사용된 것이다. 비한정 구문(indefinite descriptions)도 속성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지시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Rouchota 1994 참고):

한국어의 명사 구문도 마찬가지이다. (13)를 보자.

(13) a. (철수는 일찍 회사에 온다. 그를 가리키며) 일찍 오는 사람이 전화하도록 하도록 해.

b. (누구든지) 일찍 오는 사람이 전화하도록 하도록 해.

(13a)에서는 '일찍 오는 사람'은 '철수'를 지시하고 있다. 대조적으로 (13b)에서는 특정한 지시체를 가리키지 않고, 누구든지 그 진술에 부합되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

속성적 용법으로 쓰이면, 그 진술을 만족시키는 대상이 하나일 수도 있고, 그 이상일 수도 있다. (14)의 예들은 모두 무표형이지만, 속성적 용법으로 쓰였다.

(14) a. 식사를 끝낸 사람은 다시 회의실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b. 숙제를 안 한 사람은 교실 뒤로 나가 있어.

강범모(2007)에서는 이런 무표형을 무표 복수형으로 불렀다 (위 (9a) - (9c) 참고). 그러나 속성적 용법에서, 복수의 대상이 가능하다고 하여 그 명사구를 복수형이라고 부르는 것은 적당치 않다고 본다. <답화와 인지>의 한 심사위원은 (14)의 예문은 조건문과 같은 것이며, 조건문의 특성상 양화의 표현이 내재되어 있어 한 사람 이상에 적용될 수 있으며, 한 사람 이상에 적용되는 방법이 양화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복수로 볼 수는 없다고 하였다. 속성적 용법이 결국 기술된 조건에 맞는 지시체를 가리키므로, 조건문의 특성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고 하겠다.

무표형이 쓰인 명사구는 함께 쓰인 다른 어휘 요소에 따라 복수로 해석될 수 있다. (15)를 보자.

(15) a. 오는 길에 한 학생을 만났다.

b. 오는 길에 많은 학생을 만났다.

c. 오는 길에 두 명의 학생을 만났다.

집단을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는 본 논문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15a)에서 '한 학생'은 단수로 해석된다. (15b)와 (15c)에서 '많은 학생'과 '두 명의 학생'은 복수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는 무표형 명사는 단수이나, 수식어에 따라 명사구 전체는 복수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본다.

4. 무표형의 단수 의미와 화용적 함축

유표형과 무표형이 같은 복수 의미를 가진다는 주장과 다른 복수 의미를 가진다는 주장의 공통점은 무표형도 복수형으로 쓰인다고 보는 것이다. 예를 들면, Kwak(2003:4)은 'Korean has two forms of plurals: one with a plural marker *tul* and the other without the marker' (한국어는 두 형태의 복수형이 있다. 하나는 복수 표지'들'과 함께 쓰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표지가 없이 쓰인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위에서도 보았듯이, (16)의 '학생'은 단수 개체로만 이해된다.

- (16) a. 한 학생
- b. 각 학생

'학생'이 한 명의 학생과 하나의 학생 집단을 의미한다면, (16a)의 '한 학생'은 '학생 한 명'과 '학생 집단 하나'의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어야 하고 (16b)의 '각 학생'도 '각 학생 한 명'과 '각 학생 집단 하나'로 해석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학생'이 '학생 집단'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17)의 '학생'도 단수 개체로만 해석되지, 집단 의미로는 해석되지 않는다.

- (17) a. 이 학생이 그 과제를 제출하였다.
- b. 나는 그 학생이 제출한 과제를 읽어 보았다.

'학생'이 중의적이라면, (17)의 '학생'이 왜 단수 개체로만 해석되는지, 설명할 수 없게 된다.²⁾

강범모는 무표형이 수량 표현 없이 쓰일 때 단수로 해석되는 것을 '대화상의 함축'으로 분석하였다. 그는,

'화자가 무표형을 사용할 경우, 복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화자가 충분히 정보적인 '들' 복수형을 사용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청자는 화자가 무표형으로 단수를 나타냈을 것이라는 것을 추론할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다 (2007:26).'

고 하였다. 강범모는 이 함축을 척도상의 함축(scalar implicature)으로 취급하였다. 그가 설명을 위해서 사용한 예문을 보자.

- (18) 그가 사과 세 개를 먹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네 개를 먹었다.
- (19) 아이가 놀고 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아이 여러 명이 놀고 있다.

그는 (18)에서 '사과 세 개를 먹었다'는 논리적으로 사과를 세 개 이상 먹었다는 것이지만, 척도상의 함축으로 정확히 세 개의 사과를 먹은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19)의 '아이'도 같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의 이런 설명은 오히려, '아이'가 '한 아이'를 의미한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18)에서 취소된 함축은 '세 개를 먹었다'가 아니라 '세 개보다 더 많이 먹지는 않았다'이다. 세 개보다 더 많이 먹었으면 그렇

2) 한 심사위원은 Landman의 집단이론을 바탕으로 *this committee*와 같이 collection의 의미를 가진 경우와는 달리, *these students*와 같은 일반명사는 지시적인 표현과 함께 쓰였을 때 집단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17)과 관련된 위의 논의는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2.1에서 보듯이 한국어의 무표형은 이전 이론들에서 '해체할 수 없는 덩어리' 혹은 '집단적 복수'로 주장되었으므로, *these students*보다는 *this committee*와 같은 부류로 분석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반박하는 (21)과 관련된 논의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 진다.

게 말했을 것이라는 양의 격률(Maxims of Quantity)에 의해 도출된 척도 상의 함축이다. 이 함축은 두 번째 발화 '네 개를 먹었다'에 의해 취소된다. 마찬가지로 (19)의 첫 발화의 '아이'는 '아이 하나'를 의미한다. 함축은 '놀고 있는 아이가 한 명보다 많지는 않다'는 것이고, 그것이 '아이 여러 명이 놀고 있다'는 두 번째 발화에 의해 취소된다. 따라서 (19)의 '아이'는 '한 아이'를 의미하는 것이지 함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사과 세 개'가 '세 개'로 해석되는 것을 함축 때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아이'가 '아이 하나'로 해석되는 것을 함축 때문이라고 할 수 없다.

척도상의 함축은 상위언어부정문에서 부정될 수 있다 (Horn 1985).

(20) 그는 사과 세 개를 먹지 않았다. 네 개를 먹었다.

보통의 기술적 부정문(descriptive negation)에선 사과 세 개를 먹지 않았으면 사과를 두 개나 한 개를 먹었거나, 하나도 먹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21)에서는 사과 세 개를 먹었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왜냐하면 '사과 세 개를 먹었다'는 '세 개보다 많이 먹지는 않았다'를 함축하는데, 네 개를 먹었으므로 이 함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척도를 나타내는 말은 그 척도가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상위언어부정문에 사용될 수 있다.

무표형 명사도 같은 종류의 부정문에 사용된다. (21)을 보자.

(21) A: 그 집 앞에서 아이를 봤어요.

B: 넌, 아이를 본 게 아니라 아이들을 봤어.

(21)의 부정문을 기술적으로 해석하면, '아이를 한 명도 보지 않았다'이다. 하지만, '아이'와 '아이들'에 대조 역할을 주고, 상위언어부정문으로 사용하면, 그가 본 아이는 여러 명이기 때문에 '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아이'는 '아이 한 명'을 의미하고, 그로부터 '아이를 한 명보다 더 많이 본 것은 아니다'라는 척도 상의 함축이 추론된다. 이 함축이 부정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아이'의 화용적 함축은 '한 명 보다 많지 않다'이지, '한 명'이 아니다.

강범모(2007:10)는 정관사와 같은 한정사가 쓰인 상황에서, 무표형이 단수로 해석되는 것도 화용적 함축으로 보고 있다. 그는 무표형은 단수와 복수를 모두 표시할 수 있지만, 한정적 상황에서 복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명시적인 복수형을 쓰는 것이 더 정보적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들'-복수형을 쓰지 않고 무표형을 썼다는 것은 복수가 아닌 단수이기 때문일 것이라는 화용적 함축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22) - (23)을 보자.

(22) 그 학생이 왔다. ?각자 선생님께 질문을 했다.

(23) 엄마가 그 아이에게 주었다. ?풍선을 하나씩.

(22)에서 '그 학생'을 해석할 때, 학생이 한 명이라고 함축된 것으로 추론했다면, 뒤따라 나오는 '각자'를 보고, '각자'는 복수의 대상을 전제하므로, 함축을 취소하고, '그 학생'을 복수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발화문에서는 단수 해석이 취소되지 않는다. (23)의 '그 아이'도 마찬가지이다. 함축의 가장 큰 특징이 취소가능성(cancellability)이라고 볼 때, 취소가 되지 않는 (22) - (23)의 무표형의 단수 해석은 함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

5. 무표형과 집단적 술어

무표형이 복수형이라고 주장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24)를 보자.

(24) 학생이 시위를 한다.

이전 연구들(예: 백미현 2002, Kwak 2003)은 (24a)의 ‘학생’은 단수, 복수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복수를 나타내는 다른 수식어구가 없을 때, 무표형이 복수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다. 21세기 세종계획에서 구축된 말뭉치로 “한겨레신문 2001” 과 “조선일보 2003” 기사 185,421 어절을 검색했지만, <표1>과 같이 ‘시위’를 벌인 주어가 수량 표현이 없는 무표형인 경우는 없었다.

‘들’-복수형	무표형
..와 같은 배우들도 동민들이 민간단체 회원들이 과격시위자들은	최대 20여만 명이 회원 10여명이 300여명이 30여명이 2000여명이
4	5

<표 1> ‘시위’와 관련된 술어의 주어 목록

또한, (25)의 예문도 무표형이 복수형이라는 주장에 자주 사용된다.

- (25) a. 학생이 모였다.
b. 학생들이 모였다.

Kwak(2003)에 의하면 (25a)의 ‘학생’도 (25b)의 ‘학생들’과 같이 복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들’이라는 복수 대용사(anaphora)로 받을 수 있고, 영어의 ‘students’로 번역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21세기 세종계획에서 구축된 말뭉치를 조사해 보면, 수량 표현이 없는 무표형은 ‘모이다’의 주어로 잘 쓰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를 보자.

‘들’-복수형	무표형
사람들 (2회) 병졸들이 그 동리 백성들이 독립협회 회원들이 여러분들이 교회친구들이 의원들이	군사 삼만 명이 대소인민이 전국인민이 의병은 ... 만히 ... 씨와 그 외 백여 명이 ...씨, ...씨, ...씨 등이 남녀간 수백 명이
8	7

<표 2> 집단 술어 ‘모혀(서)’의 주어 목록

1887년도의 독립신문 말뭉치 (1987년 파일명 aa000374-430) 55,531어절을 (실제 사용된 철자는 조금 다를 수 있다.) 검색한 결과인 <표 2>를 보면, ‘모혀(서)’ (‘모여(서)’)의 주어로 사용된 명사구는 ‘들’-복수형이 8회 (53%), 무표형이 쓰인 경우는 7회 (47%)였으며, 이 때 무표형은 복수를 나타내는 다른 표현과 함께 사용되었고, 무표형만으로 쓰인 경우는 없었다.

현대 국어 말뭉치를 조사하기 위해 21세기 세종 계획 말뭉치의 신문 185,421어절 (“한겨레신문 2001”, “조선일보 2003”)을 검색하였다 (‘모여’의 용례가 적어 ‘모이다’의 변형을 모두 조사하였다).

'들'-복수형		무표형
의원들이 당원 지지자들이 명망가들이 ...와 총무들이 동포청중들이 실무 간부들이 후원자들이	부부들이 이들이(2회) ...집, ...집, 레스토랑들이 편집인들이 작은 섬들이 학자들이	작은 조각이 13명의 작품이 40여명이
14		3

<표 3> 집단 술어 '모이다'와 함께 쓰인 주어 목록

<표 3>에서 보면, 2000년대 신문 기사에서도 무표형이 단독으로 사용된 경우는 3회에 불과했으며 이 중 1회는 복수를 나타내는 수량표현이 함께 쓰였다. 남은 2회는 '조각'과 '작품'인데, 이들은 유정성이 낮은 단어들이다. '들'-복수형이 상대적으로 유정성이 높은 명사에 많이 사용된다는 주장과 이에 대한 동의는 여러 곳에서 발견 된다 (예: 백미현 2002, 강범모 2007, 등). (26)을 보자. ((b)는 (7b)에서 반복)

- (26) a. 이 상자의 사과에는 노란 상표를 하나씩 붙이세요.
b. #엄마가 아이에게 풍선 하나씩을 주었다.

(26)에서, 유정성이 높은 '아이'는 복수형 '아이들이' 쓰여야 하지만, '사과'는 '들' 없이 사용될 수 있다. 즉, 유정성이 낮은 단어는 분산적인 의미를 나타낸다는 '들'-복수형도 잘 사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유정성이 낮은 단어로는 무표형이 집단 복수를 나타낸다는 주장을 하기 어렵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유정성에 대한 논의는 다루지 않았다.

더 많은 자료를 보기 위하여 1980-90년대의 소설과 수필을 조사하였다.

'들'-복수형		무표형
동창생들이 각양각색의 인간들이 초로(初老)의 인사들이 아이들이 (2회)	사람들이 (2회) 가족들이 식구들이 여염집 아낙네들이	사람이 많이 가족이 우리는
10		3

<표 4> 집단 술어 '모이다'와 함께 쓰인 주어 목록3)

이 자료에서도 '들'-복수형은 10회, 무표형은 3회 쓰였다. 무표형은 복수대명사가 1회, 복수 관련 어휘가 함께 사용된 경우가 1회였다. 무표형만 쓰인 경우는 '가족' 1회였는데, '가족'은 그 자체가 집단을 의미할 수도 있어, 일반적인 무표형과는 다르다고 본다. 결국, 총 479,901 어절 중, '시위하다'나 '모이다'의 주어로 쓰인 54개의 용례에서, 수량 표현이 없는 무표형은 2개였는데 이들은 모두 '들'-복수형으로 잘 쓰이지 않는 유정성이 낮은 명사들이었다. 말뭉치 검색을 통하여, 지금까지 무표형이 복수형이라고 주장되는데 사용된 예문 (25a)가 실제로는 잘 쓰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6. 결론

지금까지, 한국어 무표형 명사의 수 해석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무표형은 단수와 집단 복수 의미를 나타낸다는 기존의 주장은 무표형을 중의적으로 분석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 무표형이나 '들'-복수형이 같은 복수 의미를 나타내고 단수 의미 해석을 화용적 함축으로 보는 주장도 문제가 있음을 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3) 21세기 세종 계획 말뭉치: 상상적 텍스트 (53,528어절): 이문열의 소설 <사람의 아들>, 박완서의 수필 <가을에 만난 사람>. '모이' /VV'로 검색.

무표형 명사는 단수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21세기 세종계획에서 구축된 말뭉치 분석을 통하여, 수량 표현이 없는, 무표형만으로 된 명사구가 복수형의 의미로 잘 쓰이지 않음을 보았다.

참고문헌

- 강범모. 2007. 복수성과 복수 표지: '들'을 중심으로. *언어학* 47, 3-31.
- 백미현. 2002. 한국어 복수 의미 연구. *담화와 인지* 9-2, 59-78.
- 전영철. 2004. 한국어의 복수성과 총칭성/한정성. *언어와 정보* 8-2, 27-45.
- Carlson, Gregory N. and Francis J. Pelletier. eds. 1995. *The Generic Book*.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hierchia, Genaro. 1998. Reference to kinds across languages. *Natural Language Semantics* 6, 339-405.
- Donnellan, Keith. 1966. Reference and definite descriptions. *Philosophical Review* 75, 281-304. (Reprinted in *Pragmatics: A Reader*, ed. by Steven Davis. 1991, 52-64.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Grice, H.P. 1975. Logic and conversation. *Syntax and Semantics 3: Speech Acts*, ed. by Peter Cole and Jerry Morgan, 41-58. New York: Academic Press.
- Horn, Laurence. 1985. Metalinguistic negation and pragmatic ambiguity. *Language* 61, 121-174.
- Kwak, Eun-Joo. 2003. Interpretations of plural phrases in Korean. *Journal of the Linguistic Society of Korean* 35, 3-36.
- Récanati, François. 1989. Referential/attribution: a contextual proposal. *Philosophical Studies* 56, 217-249.
- Rouchota, Villy. 1992. On the referential/attribution distinction. *Lingua* 87, 137-167.
- _____. 1994. On indefinite descriptions. *Journal of Linguistics* 30, 441-475.
- Sperber, Dan and Deirdre Wilson. 1985/1996. *Relevance: Communication and Cognition*. Oxford: Blackwell.